

더불어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		보도참고자료	
보도일시	2025. 2. 17.(월) 11:00	배포일시	2025. 2. 17.(월) 11:00 배포 즉시
위원장	권칠승 (02-784-1250)	담당자	사무국장 김혜규 (010-5144-7996)

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, 17일 정책수렴 및 출범식 개최

민주당 중소기업 전국조직 결성.. 중소기업인, 전문가 부위원장단 위촉
현장 목소리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中企 성장 방안 마련

- 권칠승 위원장, "우리경제의 뿌리, 중소기업을 지키자" -

-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(위원장 권칠승, 이하 중소기업특위)가 17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중소기업특위는 권칠승 의원(경기 화성병)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된다. 권칠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으로 임명했다.
- 이날 출범식에서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위원장 임명식이 진행된 후 중소기업중앙회, 한국벤처캐피탈협회, 벤처기업협회의 정책 전달이 이어질 예정이다. 홍성국 최고위원을 비롯해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,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

초기업위원회 간사 김원이 의원 등이 참석한다.

- 중소기업특위는 “현장 목소리를 듣겠습니다. 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”를 슬로건으로 정하고,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. 진영 논리를 넘어 현장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며,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힘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.
- 출범식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△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△중소기업 범위기준 확대 △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△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법 제정 등을, 벤처기업협회는 △벤처기업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요건 개선 △법률·의료 AI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강화 △벤처기업 재창업을 위한 특화 공제제도 도입 등을,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는 △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△CVC 외부출자금 및 해외투자 한도 완화 등을 각각 정책으로 전달할 예정이다.
- 중소기업중앙회, 벤처기업협회,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제안하는 정책들은 출범식 이후, 중소기업특위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 중소기업 및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. 논의된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.
- 권 위원장은 “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 벤처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, 이제 중소벤처기업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핵심 역량이자 혁신의 기본동력”이라며 “더불어민주당 중소기

업특별위원회는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해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나가야 할 막중한 임무를 맡을 때가 되었다”라고 밝혔다.

-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“저성장과 불확실성이 뉴노멀이 되고 고물가·고금리·고환율로 총체적 위기에 빠진 지금,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해법을 찾아내어야 할 것”이라며 “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을 경제 위기에서 구해내고 말겠다는 절박한 각오로 임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[첨부]

1. 출범식 자료집
2. 출범식 포스터 끝.